

일본전전문학에 나타난 ‘비혼’이라는 이문화*

- 여성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

최은경**
rika55@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비혼’이라는 이단자(異端者) |
| 2. 선행연구 검토 | - 요시아 노부코 『다락방의 두 처녀』 |
| 3. ‘비혼’이라는 이문화(異文化) | 5. 나오는 말 |
| - 다무라 도시코 『단념』 | |

主題語: 비혼(unmarried), 단념(Akirame), 다락방의 두 처녀(Yaneurano nisyozyo), 이문화(Different culture), 이단자(Heretic)

1. 들어가는 말

2003년 사카이 준코(酒井順子)가 발표한 『마케이누의 절규(負け犬の遠吠え)』(고단샤 講談社)는 당시 4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2005년 한국에서도 『결혼의 재발견』(홍익출판사)으로 번역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 도 제목의 ‘마케이누(負け犬, 패배한 개)’라는 말이 사회적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2004년 일본의 유행어로 뽑히기도 했다.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케이누’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가진, 통용되는 하나의 기호로 유효하다. 사카이의 말을 빌리자면 ‘마케이누’란 좁게는 30대 이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없는 여성을 의미하며 넓게는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혹은 이른바 보통의 가정을 꾸리지 못한(않은) 여성을 의미한다¹⁾. 이렇듯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굳이 마케이누, 즉 ‘싸움에서 진 개’라고 과격하게 표현한 이유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어떤 결함을 가진, 또는 규격에서 떨어진 사회적 패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 당사자가 스스로를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혀둔다.
(2018S1A5B5A07070667)

** 동아대학교 특별연구원

1) 酒井順子(2006)『負け犬の遠吠え』講談社文庫、p.8

‘마케이누’로 명명하는 그 이면에는 오히려 여유와 자신감이 읽힌다. 사카이에 의하면 결혼에 의지하지 않고 삶에 만족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마케이누’라고 자인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배려이자, 처세술이라고 풀이한다.

알려진 대로 현재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생애미혼(비혼)율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에도 있다. 2015년 현재 일본의 50세까지 남자 23.4% 여자 14.1%²⁾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綜合研究所)의 분석에 의하면 2030년 일본은 성인의 53%만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29%는 미혼(비혼), 18%는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혼자 살 것으로 예측한다. 즉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은 ‘독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앞으로의 세상에서 결혼은 다양한 삶의 양식 중 하나로 인식하거나 개인의 삶을 우선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혼(皆婚)사회로 불리며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으면 대부분 제 몫을 못하는 인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근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그런 남성에 비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압도적이었기에 그녀들의 삶은 결혼 이외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다. 근대가족의 형태가 점차 변용되어 가는 21세기에 들어서 비혼 여성에 대한 인식은 변화의 징조를 보이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을 향한 언설 역시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비혼자 증가의 상황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앞으로의 한국은 일본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본고는 이러한 작금의 ‘비혼’이라는 보편적 화제가 일본문학에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용되어 왔는가 하는 사회적 시대적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³⁾으로 표기해 가고자 한다. ‘비혼’의 사전적 의미로는 “결혼하지 않은 것. 혹은 결혼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즉 ‘미혼’이라는 단어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앞으로 결혼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체적 의지가 엿보이는 ‘비혼’은 이러한 ‘미혼’에 대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즉, 여기에서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도 흔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일반적으로 ‘비혼’이라고 통칭하므로 ‘미혼 여성’의 대체어로 ‘비혼 여성’으로 규정해 가겠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전(戰前)문학에 나타난 ‘비혼 여성’으로 한정하여 당시의 ‘비혼’은

2) 같은 해 한국의 생애 미혼율(50세까지)은 남성이 10.9% 여성이 5.0%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2018년 1월 22일 「“비자발적 비혼이 80%” ‘비혼족’의 그늘」 참조

3) 현대사회에서도 결혼 여부에 따라 여성의 정체성을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미혼’이라 호칭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기 시작했으며,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비혼 여성의 범주 안에는 미혼, 이혼, 사별 여성 등이 포함된다.

어떻게 나타나고 수용되어 갔는지를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가겠다. 즉,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1884~1945, 이하 ‘다무라’로 약칭)의 『단념(あきらめ)』(1911.1.1~3.31 『大阪朝日新聞』)과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 1896~1973, 이하 ‘요시야’로 약칭)의 『다락방의 두 처녀(屋根裏の二処女)』(1920)를 주요 텍스트로 하겠다. 다무라와 요시야는 일본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작가이며, 두 작품은 그들의 대표작으로 당시의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얻었다. 두 작품에는 기존의 정형화된 여성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진화된 모습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여학교를 졸업한 젊은 여성들의 관계와 그들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작중 여성들은 견고한 ‘현모양처(良妻賢母)’의 근대규범 아래에서 여자대학 혹은 여자기숙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만의 이야기와 ‘자아’를 발견하고 확립해 간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을 통해서 이른바 ‘비혼 여성’의 원류를 추적하여 가부장제 근대 가족사회에서 ‘비혼’은 어떻게 출현하고 표상되어 왔는가를 논증해 갈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본고에서 다룬 두 작품은 여학교를 통해 소녀문화가 확산되던 시기에 간행되었다. 두 작품은 작가의 이력과 생애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인공은 여학교 출신자로 대학(전문학교) 졸업을 앞둔 여성이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세상의 평범한 결혼 제도와는 먼 인생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작품의 발표 시기, 전체적 분위기와 줄거리는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하나 그 결말은 다소 상이하다. 여기서는 각 작품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한 뒤 본고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 가고자 한다.

먼저 다무라문학 연구는 그녀의 생애와 병행하여 연구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녀의 자유분방하면서도 파격적인 인생은 비참하게 몰락한 여성⁴⁾의 생애로 해석되어 왔다. 반면 다무라의 “적나라한 성적관계와 신체를 둘러싼 심리묘사, 관능적인 문체”는 “가부장제 가족의 속박 속”에서 그린 “여성의 자기표현으로의 고뇌”로 분석하며 그녀야말로 “근대일본 여성문학의 원점”⁵⁾이라고 정의하는 목소리가 있다. 즉, 최근에는 다무라를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페미니스트로 인정하는 평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그녀의 작품은 참신한 페미니즘,

4) 瀬戸内晴美(1961)『田村俊子』文芸春秋、引用は講談社文庫(1993)、p.332

5) 渡邊澄子(2006)『佐藤(田村)俊子新論』『大東文化大学紀要 人文科学』44集、pp.105-119

혹은 남녀상극을 다룬 선구적 소설로 해석된다. 특히 작품 속 여성의 자아 표출과 반항, 관능적인 성(性)에 대한 시선은 참신한 묘사로 평가받아 앞으로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무라의 문단 데뷔작인 『단념』의 경우는 주로 ‘자의식에 눈 뜬 여성의 자립희망과 현실의 상극, 그리고 섬세하고 탐미적인 정서와 관능의 세계’등 다무라의 문학적 특질과 경향이 거의 내장되어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아울러 아직 형식상으로는 문학의 초기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간 사토코(菅聡子)는 “처음으로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들의 관계성을 그린 작품”⁶⁾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작품에는 각본가를 꿈꾸는 비혼 여성이 등장하는 점에서 미즈타 노리코(水田宗子)는 당시의 여성작가는 “여자로서의 규범과 역할, 남자와 남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문학을 통한 사회적 인지와 경제적인 자립”은 “여자의 자의식과 자아의 주장”⁷⁾을 구체화 하는 길로 여겨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단념』이 여성들의 끈끈한 유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사에키 준코(佐伯順子)는 사랑은 “이성애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간의 관계로 넓어져 간다”고 분석한다. 덧붙여 “이성간, 결혼애(結婚愛)를 절대시하는 남성지식인의 연애관 결혼관을 여성 쪽에서 상대화”⁸⁾한 것이 의의라고 지적하며 다무라는 “여성의 마음 치유가 남녀의 사랑에만 있지 않다”⁹⁾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한국에서의 다무라 연구는 작가가 『세이토(靑鞆)』에 참가하는 등 여성지식인으로 활동한 것에서 ‘신여성’을 키워드로 한 작품분석이 눈에 띈다. 최근에는 작가의 몇몇 단편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단념』에 관한 논문도 아직 양질면에서 발전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 도미에를 “수동적인 약자”가 아닌 “투쟁하고 행동하는 도전적인 주체”로 정의하며, 비혼으로 ‘가장’이 되고자 귀향하는 것은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는 “변칙적인 모습”이지만 “메이지(明治)라는 시대의 감춰진 이면을 부각”¹⁰⁾시킨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도미에를 통해서 여성들의 결속이 가부장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¹¹⁾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은 본고와도 일맥상통한다.

본고에서 다룰 또 다른 작품 요시아의 『다락방의 두 처녀』는 작가의 초기장편으로 “노부코

6) 菅聡子(2006)「女性同士の絆—近代日本の女性同性愛」『国文』第106号、お茶の水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p.29

7) 水田宗子(2005)「ジェンダー構造の外部へ—田村俊子の小説」『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俊子新論』、p.133

8) 佐伯順子(1998)『「色」と「愛」の比較文学史』岩波書店、p.292

9) 佐伯順子(2000)『恋愛の起源』日本経済新聞社、pp.216-218

10) 윤복희(2006)「다무라 도시코 연구」『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pp.347-358

11) 최은경(2010)「여자에 의한 여자이야기-다무라 도시코의 데뷔작을 중심으로」『일어일문학』대한일어일문학회, pp.313-327

의 원점이라고 불러야 할 중후한 반자전적 소설’이라는 평가와 아울러 “가부장제사회로의 거절과 여자들의 연대에 의한 탈출”을 그린 “혁명적인 방향전환을 제안”¹²⁾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요시야는 대중소설작가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태평양전쟁기에 펜부대 일원으로 활약하는 등 전쟁협력 작가라는 이유로 편향된 시선으로 평가되어 온 감이 있다. 요시야는 근대 소녀소설의 제1인자로 불리는 작가이나 최근에는 그녀의 작품들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다락방의 두 처녀』에 관해서 구메 요리코(久米依子)는 등장인물의 “이단이기에 자신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왜곡된 엘리트의식”¹³⁾을 지적하며 기숙사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적 관계를 “이성애의 대상을 배제한 실제 사회와 동떨어진, 한정적인 판타지 공간 속에 실현의 장을 확보”¹⁴⁾해 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가와사키 겐코(川崎賢子)¹⁵⁾는 “메타소녀소설”이라고 정의하며 “다양한 코드의 인용, 반복, 패러디화, 단편화에서 시작되는 어수선했던 산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의 다케다 시호(竹田志保)는 “실로 위험 시되는 욕망을 숨기면서 온건(穩健)한 것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케다는 본 작품이 육체적 욕망이 포함된 여성동성애를 “불가시화”¹⁶⁾함으로써 당시의 성규범을 지지하는 꼴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한국에서의 요시야문학 연구는 전쟁과 ‘소녀소설’을 키워드로 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작품 역시도 소녀소설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무라와 요시야문학 연구는 최근에 들어 근대여성작가의 업적과 작품이 재조명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나, 아직 다양한 작품으로의 시도는 미흡한 상태이다. 일본에서도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분석한 연구와 ‘비혼 여성’이라는 통시적인 주제의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 두 작가와 작품은 아직 생소하여 본격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본고는 전전문학에 나타난 ‘비혼 여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두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혹은 거부하는 여학교 출신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즉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근대의 가부장제 개혼(皆婚)사회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앞서 사카이 준코는 “유교의 잔재가 동아시아 유교권 3국(한중일)에 만혼화와 소자화(少子化)를 가져왔다”

12) 井上理恵(2011)『大正女性文学論』翰林書房, p.84, p.97

13) 久米依子(2004)「吉屋信子<制度>のなかのレスビアン・セクシュアリティ」『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3, 月至文堂

14) 久米依子(2001)「エスー吉屋信子『花物語』『屋根裏の二処女』」『国文学境界を越えて恋愛のキーワード集』46(3), 2月臨時増刊号學燈社, p.154

15) 川崎賢子(1990)「吉屋信子論-欲望する少女を発見しつつ、少女への欲望を禁欲した<作家>のために」『少女日和』青弓社

16) 竹田志保(2014)「もう一つの方途: 吉屋信子「屋根裏の二処女」再考」『学芸国語国文学』第46号, p.206, p.210

고 전제하며 “가문(イエ)”을 존속시켜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남존여비시스템이 남녀평등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어긋나기 시작하여 결혼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남녀가 대량 발생했다”¹⁷⁾고 서술하고 있다. 즉 ‘비혼’은 사회 문화와 시스템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은 또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의 지은숙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비혼 여성 집단은 이른바 전쟁독신자들이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개혼사회를 유지해왔던 일본에서 우레노코리(ウレノコリ)로 불리며 혹독한 사회적 무시와 차별에 노출되었다”¹⁸⁾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전전(戰前)의 ‘비혼 여성’의 양상과 위상이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전전까지 결혼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집안끼리 하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소위 결혼 적령기 여성에게 결혼은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전의 개혼사회에서 비혼 여성은 철저히 주변화 되었으리라 능히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비혼’은 단지 의식이나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변화, 혹은 근대가족을 둘러싼 젠더 질서에 의해서도 구성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본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두 여성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전의 ‘개혼문화’ 사회에 나타난 ‘비혼’이라는 낯선 문화에 초점을 두고 조명해 갈 것이다. 즉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는 『단념』과 『다락방의 두 처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혼 여성’출현의 배경과 의의가 보다 선명하게 부상되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비혼’이라는 이문화—다무라 도시코 『단념』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1884~1945)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96)이후 다이쇼 초기 제일선에서 활약한 작가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 직업 작가로 알려져 있다. 다무라의 출현은 가히 새로운 여성문학의 신호탄이었다. 즉,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작가로서 생활해 갈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레 여성들 자신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무라는 다수의 작품에서 근대의 가부장적 사회에 저항하는 여성과 곤란한 시대상을 역설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단 데뷔작으로 알려진 『단념』에는 주인공 오규노 도미에(荻生野富枝)를 중심으로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하며 당시의 소녀 혹은

17) 酒井順子(2012)『儒教と負け犬』講談社文庫, p.246

18) 지은숙(2016)「비혼(非婚)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9

결혼을 앞둔 여성들의 생생한 모습들이 담겨있다. 특히 도미에는 여자대학을 다니는 소위 ‘신여성’으로 표상되며 장차 작가를 꿈꾸며 세상에 나갈 생각을 하는 당찬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단념』은 도미에가 우발적으로 쓴 극본이 신문현상공모에 당선되어 이름을 알리게 된 설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설의 첫머리에는 학교에서 훈계와 주의를 받고 귀가하는 도미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감수하고 희생해라. 숨어서 분발하라’고 가르치는 교장을 존경하는 저 사람은 그런 주의에 등 돌리지 않을지 어떨지 하고 도미에는 생각했다. 자신이 허명에 마음을 썼다고 학감으로부터 훈계당한 오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며 평상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동급생의 한 사람으로 갑자기 흥미를 갖고 생각해 봤다. / “우선 뿌리를 만들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을 장래에 피우게 하는 노력이 학교의 주의다. 뿌리가 이름을 얻으려고 서두르면 꽃이 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한 아사미학감의 낮은 목소리가 교정의 서늘한 바람에 새삼스런 속삭임이 되어 도미에의 귓속에 다시 울려오는 듯 했다.

絶対に世に出るな、甘んじて犠牲になれ、隠れて奮闘せよ、と教へる校長を戴く人として、あの人はその主義に背向かない方か何うだらうと富枝は考へた。自分の、虚名に心を腐らせたと云つて学監から訓された今の自分の立場から較べて、平常注意を向けなかつた同級の一人の上にふと趣味深く立入つて見た。/ 「まづ根柢を作つて、立派な美しい花を将来に咲かせようと勉めるのが校の主義。その根が功名を急いでは花の咲くべき期がない。」と云つた浅見学監の低い声が、校庭の涼しい風に新たにされた囁きになつて、富枝の耳の奥に再び響き起つたやうに思はれた。

(1-251)¹⁹⁾

학교는 신문에 이름이 실린 도미에를 향해 “허명”에 빠졌다고 훈계하며 이름을 알리지 말고 “숨어서 분발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당시의 여성교육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다시피 근대일본의 여성교육은 철저한 ‘현모양처’의 가치규범아래 애정, 순결, 미적 규범이 형성되어 공교육을 통해 관리되었다²⁰⁾. 여학교를 졸업하면 결혼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 여성들은 학교에서도 장차 남편을 돕고 집안을 꾸려갈 실용적인 것(마사지, 꽃꽂이, 제봉 등)을 배우며 “감수하고 희생”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훈육 받았던 것이다. 상기의 인용문은 도미에가

19) 본문은『現代日本文学大系 第32』(筑摩書房, 1973)에서 인용했으며, 괄호안의 숫자는 본문의 각 장과 페이지를 표시한다. 한국어 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한다. 이하 동일. 단, 『단념(あきらめ)』은 신문연재 후 같은 해 7월1일 金尾文淵堂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과정에서 개고과정을 거쳤다. 현재의『단념(あきらめ)』은 초출이 아닌 단행본의 개정본으로 하며 본 논문의 텍스트도 그것에 따랐다.

20) 渡部周子(2007)『<少女>像の誕生—近代日本における「少女」規範の形成』新泉社, p.11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원예를 하고 있는 동급생 후루이(古井)를 보는 장면이다. 후루이는 기숙사 방을 돌며 꽃을 꽃이주는 것에 만족하며 평생 꽃 속에 파묻혀 살고 싶다는 여학생으로, 어쩌면 학교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꽃을 장래에 피우”려고 노력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으로 비춰진다. 그에 반해 도미에는 여자대학생의 신분으로 남자의 주된 영역이었던 문단에 이름을 올린 건방지고 당돌한 이미지로 표상된다. 결국 도미에는 학교를 그만 두지만 뒤에 동급생 우에다(上田)의 편지 내용을 통해 도미에의 위상을 추측할 수 있다. 우에다는 도미에를 “대학이 생기고 나서 이름을 떨친 사람”으로 정의하며 자랑스럽다고 표현한다. 또한 학교 측에서 말하는 “허명”을 질타하며 도미에의 “실력”은 내심 교장을 비롯해 모두가 평가하고 있다고 응원한다. 이렇듯 도미에의 작가로서의 실력은 내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모양처의 훈육을 담당하는 여자대학으로서 남자와 대등한 활약이 기대되는 도미에란 인물은 가르침에 위배되는 불량 학생임에 분명한 것이다. 그런 도미에이기에 자퇴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본문에는 도미에 이외에 학교를 반학기만에 퇴학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배우를 지망하는 미와 하쓰메(三輪初女)는 퇴학 전까지 도미에와 친밀한 사이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이기도 했다. 미와는 뛰어난 용모에다 “천재적”이라 평가받는 예술성으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의 미와가 배우로 성장해 가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산재했다. 그래서 그녀는 직업적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과감히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미와도 도미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해 가는 굳건한 ‘자아’의 소유자로 특별한 여성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일까? 그러나 학교를 퇴학한 뒤 도미에가 우연히 재회한 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예전에는 두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에서는 자신에게는 보라색으로 보이고 미와에게는 노란색으로 보일 정도로 두 사람이 헤어져 있었던 동안에 세월이 제각각 자신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昔は二人ながら赤い色と思つたものも、今では自分には紫に見え三輪には黄色く見えるほどに、二人の別れてゐた間の年月がそれぞれに自分と云うふものを作り上げてしまったのだから仕方がないと思つた。(13-282)

도미에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미와에게 말하고 형부의 손을 놓고 자활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미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올라 네더솔의 사진판을 보고, 이 여배우는 사피와 카르멘을 연기하면 너무나 요염하여 사람을 매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윤리적이라고 해서 흥행을 금지시킬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동경하며 쫓는 눈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다.

富枝は自分の思つたことを三輪に語つて、さうして兄の手を離れて自活したいと云つたが、

三輪はそれには何も答へなかつた。オルガ、ネザソールの写真版を見て、この女優はサアフォーやカーメンを演じると余り妖艶で人も魅しすぎる為、政府からインモーラルだと云つて興行を差しとめられたほどだとそんな話をした。さうして何かに憧れてゐるやうな捉へたいものがあつてそれを追うやうな眼をしてちつと考へてゐた。(13-283)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도미에와 미와는 각각 작가와 배우로 자립하기를 희망했다. 학교에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사이였지만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학교를 벗어난 현실에서는 상대의 고민을 들어줄 여유는 좁아지고 각자의 “자활”에만 집중되어 간다. 상기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도미에의 현실적 고민에 미와는 자신이 동경하는 배우이야기로 응답하며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도미에가 인정하듯이 불확실한 꿈을 좇던 여학생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서로가 확고한 자아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난색을 표하는 학교에 자퇴를 함으로써 같은 선택을 했지만 이후의 행보에는 괴리를 보인다.

신문기사가 유학비용을 대 줄만큼 지하야에게 약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와는 그 기사를 이용한 것이리라. 상처 입은 명예 배상금액이 유학비용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신문기사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미에는 역겨웠다. 어쩐지 미와와는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신과 마주한 적진 속에 미와가 서 있는 듯이 느껴졌다. (중략)

겨우 신파배우의 일원이 된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이번 신문 기사를 좋은 구실로 하여 지위도 이름도 없는 여자의 몸으로 유럽으로 날아갈 행복을 만든 미와를 도미에는 장하다고 생각했다.

新聞記事だけのことなら、千早が洋行費用を出してやるまでの弱点とは思はれない。三輪はあの記事を利用したのであらう。傷つけられた名誉の賠償金額が洋行費用なのかも知れない。それか、然うなければ新聞記事が事実なのかも知れないと富枝は疎ましく思つた。何となく三輪とは遠く離れて了つたやうな気がした。自分と対ひ合つた敵陳のなかへ三輪が立つたやうに感じられた。(中略)額が新派俳優の一座になぞ組むのを自分で笑つて、今度の記事を好い口実に、地位もない名もない婦女の身で欧米へ飛ぶ幸福を作つた三輪を、富枝は偉いと思つた。

(16-288)

앞서도 언급했듯이 미와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으나 아무런 배경을 갖지 못한 그녀가 연극계에서 성공을 쟁취하기란 지난한 일이 된다. 그런 미와는 어느 순간에 극단대표 지하야 아이치로(千早阿一郎)의 애첩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총애를

받는 존재가 되어서 그의 후원으로 유학의 기회까지 얻게 된다. 도미에는 젊은 여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신문 기사를 읽고는 미와가 모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동정한다. 하지만 이후 미와는 도미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하아와 어울리며 신파배우의 자리를 획득해 가는 것이다. 도미에에게 미와는 한때는 가족보다 더욱 애뜻하고 친밀한 동지였지만 지금은 자신과 마주한 “적진”에 있는 듯 단절되고 낯선 존재로 다가온다. 도미에 자신과는 달리 미와가 여성성을 담보로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남성이 점유한 연극계에서 여배우는 “드문 일이라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도미에이기에 “지위도 이름도 없는 여자의 몸”으로 “스스로 갈”과 행복을 만들어 가는 그녀를 오히려 “장하다”고 평가하며 서양에서 명성과 훌륭한 평판을 얻어 금의환향할 것을 내심 축복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미에와 미와는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거부한 채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스스로 갈”을 개척해 간다. 미와의 경우는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 대가로서 “허영”과 “애첩”이라는 세상의 지탄과 수모를 받아도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다. 이처럼 미와가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고 예능을 연마하는 것은 나약한 여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며 또한 “배우”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 특성상 미와의 앞날 역시도 결코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평탄한 인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는 미와도 어떤 의미로는 ‘자아’를 긍정한 특별한 여성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와의 뒤를 쫓듯이 학교를 그만둔 도미에는 현상공모 당선으로 작가로서의 기능성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나온 세상에서 ‘여성’ 작가로서 활약하기란 녹록치 않은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삼일 지나자 평이 신문에 났다. 가벼운 작품이지만 여자의 작품치고는 괜찮았다고 하는 평도 있었다. 무리하게 애수를 만들어낸 곳이 있어서 좋지 않다는 것도 있었다. 반면, 장마다 변화가 있고 매우 재밌다. 대단원에 소나무 숲 장면 등은 배우의 기량과 잘 맞아서 매우 훌륭하다는 칭찬의 말도 있었다.

二三日すると評が新聞に出た。甘い作だが女としてはと筆が洩らせたのもあつた。無理に哀愁を帯びさせようとした様な所があつて厭味だと云ふのもあつた。然うかと思ふと場毎々に変化があつて非常に面白い、大詰めの松原などは役者の伎倆と相まつて絶品だなどと賞めたてゐるのもあつた。

(24-305)

그날 밤 도미에는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도쿄에 머무르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역시 형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남자가 아니다 젊은 여자다. 그날 밤

도미에는 매우 슬펐다.

その晩富枝は眠れなかつた。自分が東京に踏み留つて好きな事をやり度いと思ふ限り、其れ等に就いての保護は失つ張り兄に頼むより他はなかつた。自分は男ではない。若い女である。

その晩富枝は非常く悲しかつた。

(27-308)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도미에의 각본 ‘진니(塵泥)’에 관해서 “여자의 작품치고”라는 편협하는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의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대로 작품은 무대 연극으로 완성되어 성황리에 상연된다. 이제 도미에는 “한 사람 뭉”을 하는 실력 있는 작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작가’의 일을 계속 하려면 기성 작가로 활동 중인 형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가 아니다. 젊은 여자다”라는 아픈 독백은 ‘자아’를 가진 여자로서 “자활”하기 어려운 현실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본문에서 도미에는 형부 료쿠시의 작품을 읽고 “낯고 뻥한 기교”에 내심 동정하지만, 그런 료쿠시는 시대에 뒤쳐져 있음에도 늘 자신에 차 있다. 그것은 일정부분 평가를 받은 ‘남성’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노 마사히데(阿武正英)는 본 작품에 관하여 “신인작가였던 한 여성이 ‘여작가’가 될 때까지라는 시점에서 여주인공의 자아를 분석”했다고 평가하며 그런 여성의 모습은 “빈곤생활과 여성편력으로 가족을 희생하면서 창작에 고뇌하는 남성 작가의 탄생이야기”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도미에의 모습은 자유와 자립을 회구하면서 “통념을 포함하는 시대의 압력 속에서 인생의 진로 선택을 여지없이 강요당하는 여자들의 곤란함을 상징”²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당시(메이지시대)에는 남성이 기득권을 확보한 남성주도의 시대이며 여성은 남성의 부수적 존재로 취급받아왔다. 그러므로 남성이 주류인 문단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작가로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다. 도미에 역시도 그런 현실을 주지하고 있었기에 어떻게 자립하고 “자활”해 갈 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은 혼자 힘으로 계모와 할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골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양자를 들이는 것이 싫으면 자신의 힘으로 일가를 부양해야 한다. 남편으로부터는 언제라도 자활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지위, 확고한 근거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여학교의 교사가 된다. 그것이 자신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라도 소망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인생에 대한 길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自分は、自分の力で継母や祖母を養つてゆかぬばならぬのだ。田舎へ帰つて、土地から養子

21) 안노 마사히데(2005)『田村俊子作品の女性像に關する一考察—凹型の自我から凸型の自我へ』『일어일문학연구』한국일어일문학회, pp.349-367

などを迎へるのは厭だと思ふ限り、自分の力で一家を養つてゆかねばならぬ。夫れには何日何時にも自活の途の取れる地位、確固した根拠を作つ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大学を卒業て、地方の女学校の教師になる。其れが自分の目的ぢやないが、自分の自然の境遇が、其様なことでも望まなければ、自分だけの人生に対する道が尽せないことになる。(2-255)

본문에서 도미에는 세 자매 중 둘째로, 언니 쓰마코(都満子)는 아버지 생전에 소메야 료쿠시(染谷緑紫)와 결혼을 했고 여동생 기에(貴枝)마저도 시노(志野)집안의 양녀로 가서 예기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현재 도미에는 도쿄의 소메야(형부)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할머니와 계모 오이요(お伊豫)가 고향 기후(岐阜)에서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는 차녀 도미에게 오규노(荻生野) 가문을 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기에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집을 지키며 “계모와 할머니를 안심시킬 의무가 있다”고 자신을 설득시킨다. 아울러 만약 귀향하여 억지로 결혼까지 하게 되더라도 “자활의 길”로 직업(교사)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막막하다고 생각한다. 상기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결혼도, 교사가 되는 것도 도미에 자신이 실로 원하고 목표한 것이 아니란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귀향도 결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도미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단념’하고 도쿄를 떠나 시골로 향한다.

자활할 수 있도록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이 3년간 공부한 증거라며 졸업증서를 보이며 밋다고 생각한 며느리의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랑스러운 손녀가 나왔을까하고 그냥 평범하게 기쁘게 해 드리고 계모에게도 이것이 자신의 딸이라며 자랑거리를 제공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스스로 자각하고 비판할 정도로 자신은 영리하게 태어났다고 도미에는 슬프게 단념하고 있었다.

自活の出来得る様に大学を卒業て、これが三年間勉強した証だと云つて卒業証書を見せて、憎いと思つて女の腹から此様な殊勝らしい娘が出来たかと平凡に祖母をよろこばせて、これが自分の娘だと威張り度いと云つた継母にも、自慢の種を供給する。然うしなければならぬ自分だ、其れを無意義だなどと、悲觀するのを我儘だと自覺する程、自分は利口に生れ附いてゐるのだと、富枝は悲しく断念めてゐた。(2-255)

도미에의 현재의 욕망과 자유는 모두 단념의 그늘에 숨어 있다는 것이 지금 도미에의 마음의 형상이었다. 입대고 싶을 만큼의 부족함도 없다. 오이요의 형편이 허락할 때에 집 하나 들고,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기후라는 곳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가서 또 그 땅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만큼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각오뿐이었다.

富枝の現在の境遇に於ける欲望や自由は皆あきらめの陰に隠れてゐると云ふ様なのが今の富枝の心の形であつた。云ひ度いやうな不足もなかつた。お伊予の都合のいい時に手荷物一つ持つて、まだ行つた事のない岐阜と云ふ所へ祖母に逢ひにゆき、又その土地から離されるまではそれだけの年限を其所で送らうと云ふ、それ限りの覚悟だけであつた。(29-313)

『단념』은 도미에가 도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향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도미에는 가계를 잇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혈육인 할머니를 봉양하며 살려고 결심한 것이다. 시다라 마이(設樂舞)는 도미에를 “인생의 책임을 등에 짊어지고 그것만은 고수하고 싶다는 강한 결의를 가진 의지적인 주인공”으로 평가하며 “결단이 그녀를 시골로 내려가게 했다”²²⁾고 분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라는 것은 작품명이기도 한 ‘단념’을 일컫는 표현이다. 그리고 ‘단념’이란 상기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미에가 “욕망과 자유”를 포기하고 도쿄에서 맺은 인연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미에가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슬픈 “각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여자의 몸으로 ‘가장’이 되려고 귀향하는 것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은 ‘현모양처’를 꿈꾸며 가장인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색적이며 변칙적임에 분명하다. 본문에서도 기에의 양어머니 오라치(おらぢ)의 입을 빌려 “젊은 여자가 혼자서 가계를 꾸릴 수도 없고 하숙도 할 수 없”는 시대상을 언급하며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친 사람은 모두 저렇다”라며 도미에의 선구적인 행보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다. 즉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미에가 선택한 “단념”과 그것의 함의이다.

도미에는 당시로서는 드문 여자대학을 다니는 신여성으로 각본가로 등단하여 나중에는 무대상연까지 성공시키는 재능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그녀는 평범하고 수동적인 여성들과는 차별된 면모가 부각된다. 도미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자아’를 인정한 미와가 남성의 원조를 받으며 배우로 성장해 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감하게 혼자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의지를 내보인다. 귀향의 배경이 되는 “단념”이야말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도미에의 귀향은 도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쓰마코, 기에라는 여자 형제와 학교의 동급생 미와, 후배 소메코(染子)라는 친밀한 동성과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본문에서 도미에 주변은 자매와 대학을 비롯하여 대부분 여성들이며 소수의 남성은 가까운 형부 료쿠시에 대표되듯이 속물적이며 권위적인 이미지가 목격된다.

22) 設樂舞(2005)「『あきらめ』の斬新性」『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俊子新論』国文学解釈と鑑賞 別冊, p.168

그렇기에 도미에의 우호적인 시선은 주위의 동성에게로 향해있으며 이성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미에가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만난 동성인 미와, 소메코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도 없어 보인다. 즉, 주류의 남성기득권적 가부장제 아래 기존의 이성애와 결혼에 관한 거부감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도미에의 ‘단념’이란 작가가 되려는 “욕망”과 동성애적 관계가 가져다주는 은밀한 “자유”를 유보하며 현실과 일정부분 타협함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귀향하여 ‘오규노’ 가문을 지키며 여자호주로 살려는, 한 여성의 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의 타협이라고는 하지만 이성애와 결혼에 비관적인 도미에가 세상의 ‘제도’와 성규범에 순응해 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미에의 ‘단념’은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당연하고 평범한 생애과정을 포기한 ‘비혼’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당시에는 생소하고 낯선 하나의 ‘이문화’로 비춰졌음에 분명하다.

4. ‘비혼’이라는 이단자—요시아 노부코 『다락방의 두 처녀』

요시아 노부코(吉屋信子, 1896~1973)는 1916년부터 소녀잡지에 약 7여년에 걸쳐 연재한 『꽃 이야기(花物語)』로 정식 데뷔하게 된다.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 『다락방의 두 처녀』는 데뷔작과 마찬가지로 소녀소설의 대표작으로 불린다. 본 소설에는 근대교육과 순결사상 구현화의 장소였던 여학교(대학)와 기숙사 등, 금남의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여학생들의 세계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락방의 두 처녀』의 서두는 다키토 아키히코(滝本章子)가 엄격한 규율의 미스 L의 기숙사에 갑갑함을 느껴 2년간 생활한 그곳을 나와 다시 미션계 기숙사 YWA의 다락방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상처 입은 짐승매우 비참한, 마치 어린애에게 놀림 받고 축축하게 젖은 목을 숙이고 있는 애처로운 강아지와 같은 아키히코에게는 입사할 수 있을 지 없을 지가 불안이었다. (중략) 거기서는 적국의 성으로 온 용자가 아닌 전설 속 오래된 탑 정상에 사는 괴물을 잡기 위하여 갑옷을 입고 탑 위로 올라가는 젊은이의 늪룩한 모습에 자신을 빗낼 수 있었다.

傷ついた獣—非常にみすばらしい;まるで子供ににいじめられて,びしょ濡れになって首をうなだれている哀れな小犬のような章子には、入舎できるか出来ないかが不安だった。(中略)そこでは敵国のお城へ来た勇士ではなくて、伝説にある古塔の頂上に住む魔物を捕らえるために甲冑

に身をかためて搭上に登りゆく若者の雄々しい姿に自分をなぞらえることが出来た。(42)²³⁾

아키코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라난 인물로 어머니와도 몇 해 전에 사별하였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도 여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에 여원 처지였다. 도쿄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진학한 아키코는 미스 L의 교육방침에 순종할 수 없어 무작정 기숙사를 나오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상처 입은 짐승”마냥 불안과 “암흑의 절망감”을 안고서 새 거처를 찾았던 것이다. 입사를 승인받은 YWA기숙사에서 아키코가 안내받은 곳은 맨 위층의 작은 다락방이었다. “화양절충(和洋折衷)” 양식 건물의 4층에 위치한 다락방은 일본식 설계의 아래층과는 달리 “이국정서를 포함한 진귀하고도 기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곳은 마치 아키코의 남다른 성격과 상황을 이미지하고 있는 듯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뭔가에 이끌리듯이 다락방의 거주자가 된 아키코는 스스로를 탑 정상을 향해 가는 ‘늪틈한 젊은이’로 비유한다. 이것은 나약하고 고정된 여성성에 갇히지 않는 아키코의 주체적이고 당당한 내면을 엿보게 한다. 아키코는 “오롯이 혼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물리적으로 격리된 장소인 다락방을 그런 자신에게 “안락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다락방이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는 이유는 옆방의 아키쓰 다마키(秋津環)와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용모, 자세는 물론 수정같이 차가운 조용함도 자연스레 갖추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조용함은 필연성의 표현일까, 이것만은 숨이 막힐 듯한 아아, 마치 유태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 잡음과 혼탁한 공기 안에서 잘도 저만큼 고립된 절대적 조용함과 편안함을 가지게 된 걸까하고 경이로운 눈으로 그 사람을 아키코는 응시했다.

その人の顔容、姿勢は共に水晶のように冷たい静かさをなんの努力なしに保ち得ていた。その人に特に与えられた静か사의必然性の現われであろうか、これだけの息の詰まりそうな—ああ、まるで猶太人だ! とでも言い切ってしまいたいほどの、雑音と混濁した空気の中から、よくもあれほど孤立した絶対の静けさと安らかさを保ち得るかと驚異の眼を見張って、その人を章子は視凝めた。(66)

동성의 사람을 연모한다는 것·세상에 슬프고도 애처롭고 조용하게 게다가 미칠듯한 애욕의 고민을 아키코는 떨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략) /아키쓰를 생각하면 스스로 알면 이미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고 만약, 만약 자신의 부끄러운 이 일방적 사랑을 키우고

23) 본문은『屋根裏の二処女 吉屋信子乙女小説コレクション』(国書刊行会, 2003)에서 인용했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본문의 페이지를 표시한다. 한국어 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한다.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 버리면……하고 있을 수 없는 의심이 일어서 자신을 괴롭힐 정도의 수치심에 떨면서 힘들어 한 것이었다.

同性のひとを恋うという一世にもあわれに、いじらしい、ひそやかにしかもの狂わしい愛欲の悩みを章子は打ちふるえながら受けねばならなかった。(中略)秋津さんを思っている—と自分で知ると—もうその人の顔をまともに見るのが堪えぬ—もしも、もしも自分のはずかしいこのかたわの愛を育んでいる心をその人が知ってしまったら……とあり得ないようなうたがいさえも起ってわれとわが身をさいなみつくさねばやまないほどの羞恥に恐れ怯えて苦しむのだった。

(155)

본문에서 아키코와 다마키는 다락방의 옆방 거주자로 인사를 나누게 된다. 아키코는 다마키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용모와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후 그녀를 주시하게 된다. 본문에서 다마키란 인물은 기숙사의 다른 동료들과는 차별된 단정하고 아름다운 용모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인물로 조형되어 있다. 아키코가 “패잔자의 외롭고 슬픈 그림자”를 드리우는 남다른 존재라면, 다마키는 “고립된 절대적 조용함과 편안함”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로 부각된다. 본문에서 동료 구도(工藤)는 아키코를 ‘돈키호테’로 다마키는 ‘햄릿’으로 비유한다. 근대교육을 받고 있는 그녀들이기에 서양 명작의 주인공이름은 익숙할지 몰라도 여성을 굳이 남성에 비유한다는 것은 앞서 아키코가 자신을 “늪뿔한 젊은이”로 비유했듯이 당시의 엄격한 성역할에도 개의치 않는 신여성다운 면모를 부각시킨다. 아울러 동료들 시선에도 두 사람은 과감하면서도 용기 있는 인물로 비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평범한 여학생들과는 이질적인 두 사람에게 다른 층과는 구분지어진 요새 같은 다락방은 그들의 특별함을 표상하는 적격의 공간이 된다고 하겠다. 상기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다마키에 매료된 아키코는 “동성의 사람을 연모”한다고 인정하며 상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일방적 사랑”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인생에 품은 어둡고 끝도 없는 “why” 아버지에 이끌려 남편의 손에 건네져도 이 고뇌는 결국 아름다운 사람을 죽음으로 까지 몰려고 했다.

人生に抱ける暗い果しもない“why”父に強いられて良人の手に渡されても、この苦悩は遂に美しい人を死にまで走らせようとした—

(314)

단지 인간은 ‘자아’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뿐인 걸까-온갖 고통을 받아도 오히려 ‘자아’를 지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에 ‘자아’의 길을 가야만할까? 아무리 가난하고 작은 거라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아’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지키고 키워가야만 할까?

ただ人間は「自我」の前にのみ首をたれて生きるのみであろうか—あらゆる苦痛を受けても尚「自我」を守りて一步も退かず正面に「自我」の路を行くべきであろうか? どのように貧しく小さきものであっても己れに与えられた「自我」はあくまで、それを守り育てて行くべきであろうか?

(316)

‘햄릿’에 비유된 다마키는 늘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런 두 가지 “why”를 쫓으며 “자아(自我)”를 찾고 있었다. 그런 다마키는 주위의 시선과 규칙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성으로 비춰진다. 아키코는 평범하지 않는 다마키를 “용감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이단자(雄々しい強い美しい異端者)”로 표현한다. 다마키는 “자아”가 없는 곳에 “생명”은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금지한 여성의 “자아”를 찾으려고 했으며 아키코 역시도 그런 다마키에 동조하며 뜻을 함께한다. 다케다 시호(竹田志保)는 두 주인공들이 보이는 ‘이단’성에는 “다른 여성들과는 차별화된 일종의 엘리트의식이 엿보이며 이것은 결국 일반 여성들을 배제하는 구조”가 된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결국 둘의 의기투합은 “이단자끼리의 결합임과 동시에 상대와의 동일화의 욕망”²⁴⁾으로 풀이한다. 아키코가 다마키에게 결정적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모두 교회로 향하는 일요일에도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채 당당히 세탁 주머니를 들고 나서는 행동을 목격했을 때였다. 이렇듯 학교와 기숙사의 훈육과 교리에 복종하지 않는 두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성질, 즉 ‘이단적 성향’을 가진 상대에게서 강한 동료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이미 ‘자아’를 인식한 그녀들이기에 아버지와 남편에게로 이어지는 여성의 일반적이고 순종적 삶은 어쩌면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현모양처’의 강요된 삶을 거부하고 ‘자아’를 쫓는 여성은 “이단자”로 취급되기에 두 명의 “이단자”는 그들의 다락방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관계를 공고히 해 갔다. 그곳에서만은 세상의 정형화된 규범과 강요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두 사람은 아키코가 동료의 뺨을 때린 불미스런 일로 퇴사를 명령받자 다마키도 함께 기숙사를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둘은 자신들의 “회색 피난소”를 떠나야 할 상황에 처해진다.

두 명의 처녀에게 주어진 운명!/둘이서 밟아 갈 인생행로!(중략)그들의 새로운 운명을 찾아서/
그들이 가야할 길을 찾아서!

ふたりの処女に与えられた運命!/ふたりのみ踏みゆくべき人生の行路!(中略)彼等の新しき運命を求めて!/彼等の行くべき路を探して!

(317-318)

24) 竹田志保(2014)「もう一つの方途 吉屋信子「屋根裏の二処女」再考」『学芸国語国文学』第46号、p.210

사랑하는 다락방 파란 삼각형 작은 방에 살게 된 두 명의 처녀는 떠난다./그들은 서로가 운명의 손에 의해 각각 서로에게 맡겨졌다/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두 사람이 가는 길을 찾아서 다락방의 파란 방을 떠나간다.(우리들의 다락방이여)/안녕! 두 명의 처녀(운명)을 배양한 아름다운 술항아리가 된 다락방이여./두 명의 처녀(운명)을 키운 파란 요람이 된 다락방이여!/안녕-

その愛すべき屋根裏の青き三角形の小部屋に住める二人のむすめは立ち去る—/彼等はおたがい運命の手によって各々おたがいに与えられた—/そして、いま二人は二人の行く路を探し求めて、屋根裏の青い部屋を離れてゆく—(私どもの屋根裏よ)/さようなら!ふたりのおとめの(運命)を醸すべき美しい酒壺となった屋根裏よ。/ふたりのおとめの(運命)を育んだ青い揺籃となった屋根裏よ!/さようなら—

(318)

『다락방의 두 처녀』는 기숙사 다락방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처녀’가 함께 “새로운 운명”을 찾아 기숙사를 나오는 것으로 종결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why”에 해답을 얻을 때까지 서로 “외롭고 약한” 존재에서 “강한 여자”가 되어 살아 갈 것을 약속하며 “운명을 배양한” 다락방을 뒤로 하는 것이다. 작가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이 소설은 당시 여학교를 중심으로 유행한 동성애적 관계를 그린 혁신적 텍스트로서 평가받아 왔다. 『다락방의 두 처녀』의 주된 공간인 기숙사의 ‘다락방’은 세상과 유리된 그녀들만의 특별한 안식처로 정의된다. 아울러 제목의 ‘처녀’라는 용어는 웬지 ‘소녀’의 순수함과 한편으로 유치함이 배제된 성숙한 여성을 이미지²⁵⁾하며, 어리고 미성숙한 ‘소녀’보다는 ‘결혼’에 가깝지만 아직 성적 경험이 없는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두 처녀의 특별한 관계와 “자아”를 찾아 학교와 기숙사를 떠나는 행위의 일단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실로 자신다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중에서 자연스레 부상한 선택지의 하나”²⁶⁾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로서는 세상의 규율과 동떨어진 “이단”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여성은 ‘현모양처’의 규범에 순종해야만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대에 금남(禁男)의 공간을 벗어난 “이단자”들이 “자아”를 획득하고 “강한 여자”로 나아가고자 선택한 “새로운 운명”은 마치 “새로운 고난”을 예고하는 것만 같다. 그럼에도 『다락방의 두 처녀』가 당시의 소녀(결혼 전 여성)들에게 절대적 지지와 인기를 얻었던 것은 눈앞의 현실과는 달리 이성과의 결혼이 아닌 동성과의 연대와 ‘비혼’이라는 선택

25) 嶽本野ばら(2003)『吉屋信子乙女小説コレクション2 屋根裏の二処女』国書刊行会、p.327

다케모토 노바라(嶽本野ばら)는 처녀라는 용어는 단순히 버진(virgin)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처녀(処女)라 쓰고 오토메(乙女)라고 읽듯이 “흠 없이 무구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한다.

26) 小林美恵子「吉屋信子『屋根裏の二処女』-「屋根裏」を出る<異端児>たち」인용은 井上理恵(2011)『大正女性文学論』翰林書房、p.97

이 그들의 잠재된 욕망을 표현했으며, 그런 ‘이단자’의 행태가 인정되고 수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5. 나오는 말

일본은 1899년 ‘고등여학교령’을 시행하였고 이후 여학교와 여자대학 등 근대여성교육기관이 속속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세이토(靑鞆)』(1911.9~1916.2)가 창간되기도 하는 등 ‘신여성(新しき女)’이 출현하면서 여성들의 인식 변화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두 작품 역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 『단념』(1911)의 도미에와 『다락방의 두 처녀』(1920)의 아키코와 다마키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학교)에 다니는 여성들로 근대식 교육과 문화 등에도 익숙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금남의 공간(학교, 기숙사)을 통해서 동성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간 것이다. 이들은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소녀문화도 공유했을 것이며, 또한 당시의 ‘신여성’의 활약도 목격하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당시의 여성들은 ‘현모양처’의 역할만이 존재의 이유로 훈육 받아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근대교육을 받고서 ‘자아’를 획득한 두 작품 속 주인공들은 ‘현모양처’의 규격화된 삶에 저항하는 행보를 보인다. 아울러 그들은 공동체(학교, 기숙사)를 통해서 강요된 이성애 결혼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동성애적 관계에 열중해 가는 것이다. 『단념』의 도미에는 미와, 소메코와 친밀하고도 특별한 관계였으며 『다락방의 두 처녀』의 아키코와 다마키 역시도 운명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단념』의 도미에가 ‘오규노’라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도쿄에서의 인연과 자신의 꿈을 단념하고 귀향하는 것과는 달리 ‘다락방의 두 처녀’는 서로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정든 다락방을 떠나 둘이서 함께할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다락방의 두 처녀』에서는 『단념』의 도미에보다 적극적이며 진보된 여성들의 선택이 목격되지만 주인공들은 각각의 이유로 개혼사회 속에서 이성애 결혼이라는 평범한 생애과정을 거절하며 ‘비혼’으로 자립해 가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시민권조차 획득하기 어려웠던 일본전전기에 ‘비혼’은 낮은 이질적인 문화라 할 수 있으며 ‘비혼’이란 파격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는 주인공들은 전통과 제도적 권위에 저항하는 ‘이단자’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당시의 젊은 여성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었으며 한 시대를 견인하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학교와 기숙사라는 특수한 환경과 소녀문화

취향의 관계성이 일반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문화의 측면이라는 지적도 있겠으나 그런 차별된 특별함이야말로 당시에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한 여성들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작품은 현재의 다양한 삶의 하나로 이해되는 ‘비혼’의 원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두 여성작가의 선구적 시도와 과감한 표현은 일정부분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參考文獻】

- 안노마사히데(2005)「田村俊子作品の女性像に關する一考察—凹型の自我から凸型の自我へ」『일어일문학연구』55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349-367
- 윤복희(2006)「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연구」『일본학보』69집, 한국일본학회, pp.347-358
- 지은숙(2016)「비혼(非婚)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9
- 최은경(2010)「여자에 의한 여자 이야기-다무라 도시코의 데뷔작을 중심으로」『일어일문학』4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13-327
- 井上理恵(2011)『大正女性文学論』翰林書房, p.84, p.97
- 嶽本野ばら(2003)『吉屋信子乙女小説コレクション2 屋根裏の二処女』国書刊行会, p.327
- 菅聡子(2006)「女性同士の絆—近代日本の女性同性愛」『国文』第106号、お茶の水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 p.29
- 久米依子(2004)「吉屋信子<制度>のなかのレスビアン・セクシュアリティ」『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3月、至文堂
- 小林美恵子「吉屋信子『屋根裏の二処女』—「屋根裏」を出る<異端児>たち」(인용, 井上理恵(2011)『大正女性文学論』翰林書房, p.97)
- 佐伯順子(1998)『「色」と「愛」の比較文学史』岩波書店, p.292
- _____(2000)『恋愛の起源』日本経済新聞社, pp.216-218
- 酒井順子(2006)『負け犬の遠吠え』講談社文庫, p.8
- _____(2012)『儒教と負け犬』講談社文庫, p.246
- 設楽舞(2005)「「あきらめ」の斬新性」『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俊子新論』国文学解釈と鑑賞 別冊, p.168
- 竹田志保(2014)「もう一つの方途:吉屋信子『屋根裏の二処女』再考」『学芸国語国文学』第46号, p.206, p.210
- 水田宗子(2005)「ジェンダー構造の外部へ—田村俊子の小説」『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俊子新論』, p.133
- 渡部周子(2007)『<少女>像の誕生—近代日本における「少女」規範の形成』新泉社, p.11
- 渡邊澄子(2006)「佐藤(田村)俊子新論」『大東文化大学紀要 人文科学』44集, pp.105-119

논문투고일 : 2019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8월 05일
 2차 수정일 : 2018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6일

<要旨>

일본전전문학에 나타난 ‘비혼’이라는 이문화

- 여성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

최은경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전(戰前)문학에 나타난 ‘비혼 여성’으로 한정하여 당시의 ‘비혼’은 어떻게 나타나고 수용되어 왔는지를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다무라 도시코의 『단념』(1911)과 요시야 노부코의 『다락방의 두 처녀』(1920)를 주요 텍스트로 하였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학교)에 다니는 여성들로 근대식 교육과 문화 등에도 익숙하다.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급남의 공간(학교, 기숙사)을 통해서 동성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들은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소녀문화도 공유했을 것이며 ‘신여성’의 활약도 목격하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당시의 여성들은 ‘현모양처’의 역할만이 존재의 이유로 혼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근대교육을 받고서 ‘자아’를 획득한 두 작품 속 주인공들은 ‘현모양처’의 규격화된 삶에 저항하는 행보를 보인다. 아울러 그들은 공동체(학교, 기숙사)를 통해서 동성애적 관계에 열중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단념』도미에가 ‘오규 노’라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도쿄에서의 인연과 자신의 꿈을 단념하고 귀향하는 것과는 달리 ‘다락방의 두 처녀’는 서로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정든 다락방을 떠나 돌아서 함께할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주인공들은 각각의 이유로 개혼사회 속에서 이성애 결혼이라는 평범한 생애과정을 거절하며 ‘비혼’으로 자립해 가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시민권조차 획득하기 어려웠던 일본전전기에 ‘비혼’은 낯선 이질적인 문화라 할 수 있으며 ‘비혼’이란 파격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는 주인공들은 전통과 제도적 권위에 저항하는 ‘이단자’임에 분명하다.

A Study on different culture called ‘unmarried’ in Japanese literature

- Focused on the works of female novelists -

Choi, Eun-Kyung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unmarried woman” in Japanese prewar literature. I compared and analyzed how the ‘unmarried’ at that time appeared and whether it was accepted or not, focusing on the works of female novelists. The main texts were Tamura Toshiko’s *Akirame* (1911) and Yoshiya Nobuko’s “*Yaneura no Nisozzyo*” (1920). In the two works, the main characters are women who graduate from elementary school and attend university (college), and are familiar with modern education and culture. And they commonly establish intimate relationships with same sex through Manless space (school, dormitory). They would have shared the girl culture that was popular among girls at the time. And I can guess that I would have seen the influence of Atarashii Onna at that time and that it was affected. Women learned only the role of the ‘good wife’ because of their existence. Ironically, the main characters in the two works that earned “ego” in modern education resist the standardized life. And they are enthusiastic about homosexual relationships through communities (schools, dormitories). The ending of these two works is a little different. They reject the ordinary life course of heterosexual marriage. And they try to become self-reliant by ‘unmarried’. Unmarried women in Japan before the war were hard to obtain even citizenship. That is why ‘unmarried’ was a different culture. And the heroines who choose ‘unmarried’ are ‘heretics’ who resist tradition and institutional authority.